

북한의 고대국어 연구와 향가 연구의 연계성*

- 류렬의 『조선말력사 1·2』와 『향가연구』를 중심으로 -

문현수**

〈차 례〉

1. 머리말
2. 북한의 조선어사 연구: 고대·중세 조선어를 중심으로
3. 류렬(2005) 『향가연구』의 해독 양상 고찰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향가 연구서인 류렬(2005)의 『향가연구』가 어떠한 학술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향가를 창작시기에 따라 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향가인 <서동요>, <제망매가>, <예경제불가>를 선정 한 후, 이에 대한 류렬(2005)의 해독이 남북의 대표적인 향가 연구서인 양주동(1942)의 『고가연구』, 홍기문(1956)의 『향가해석』, 김원진(1980)의 『향가해독법연구』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류렬(2005)의 『향가연구』는 삼국시대의 향가, 남북국시대의 향가, 고려시대의 향가를 해독함에 있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조선어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각 시기별로 차이가 나는 음운 체계에 철저히 맞추어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은 향가에 쓰인 표기 그 자체만을 귀납하여 이루어졌다고보다는 기존에 이루어진 조선어사 연구 성과에 기대어 연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된 조선어사에 대한 지식은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을 비롯하여 『조선말력사 1·2』 등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독자적으로 축적되어 온 일련의 학술적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류렬(2005) 『향가연구』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이루어진 중세 이전의 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2184). 이 논문은 2023년 2월 16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된 2023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해의 한국학자들의 한국어 연구)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선어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대국어, 류렬, 북한, 조선어학전서, 조선말력사, 향가연구

1. 머리말

『조선어학전서』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주도로 정부 수립 후 60여 년간 이루어진 북한의 조선어 연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2005년부터 간행을 시작하여 전체 63권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와 방법론에 입각하여 집필된 이론서 및 규범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조선어 연구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어학사와 관련한 것은 『조선어학전서』 권4부터 권13까지이다. 특히 권4~권10은 『조선말력사 1』에서 『조선말력사 7』까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조선어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류렬, 김인호, 백운혁이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말력사 1』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의 조선어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조선말력사 2』에서는 고려시대부터 16세기까지의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조선어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대표적인 조선어학자인 류렬(1918~2004)이 집필하였으며, 이는 각각 1990년과 1992년에 발간되었던 동일명의 연구서를 일부 수정하여 『조선어학전서』에 다시 수록한 것이다.

한편 류렬은 향가에 대한 해독서인 『조선어학전서』 권13에 해당하는 『향가연구』(2005)도 집필하였다. 이 원고는 1990년대 후반 무렵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흥미롭게도 2003년에 남한에서 저자의 육필원고를 받아 북한보다 먼저 간행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도 2005년에 『조선어학전서』 권13의 형태로 간행되기에 이른다. 이 『향가연구』(2005)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류렬의 연구서로서, 『조선말력사 1』과 『조선말력사 2』에서 제시된 조선어사를 바라보는 류렬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표 1〉 남북의 향가 연구서에서 보이는 〈서동요〉의 해독 차이

노래의 원문	양주동(1942)의 해독	김완진(1980)의 해독	홍기문(1956)의 해독	류렬(2005)의 해독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亥卯乙抱遣去如	善化公主니른 늬 그스지 얼어두고 맛등방을 바미 몰 안고 가다	善化公主니리른 늬 그속 어러 두고 薯童 방을 바메 알홀 안고 가다	선화공주니른 늬 그스기 얼어 두고 서동 지블 바미란 안고 가다	마가시 공주님은 남겨서기 얼어두고 마보기실 밤이 몰 안고 가다

〈서동요〉는 비교적 해독이 잘되어 있고 연구자 간에 해독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향가 중의 하나이다. 〈표 1〉은 남한에서 대표적인 향가 해독 연구서로 평가 받고 있는 양주동(1942)의 『고가연구』와 김완진(1980)의 『향가해독법연구』에 수록된 〈서동요〉의 해독 결과와 북한의 대표적인 초기 향가 연구서인 홍기문(1956)의 『향가해석』과 류렬(2005)의 『향가연구』의 해독 결과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류렬(2005)의 향가 해독은 나머지 세 연구자의 해독 결과와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류렬(2005)의 『향가연구』에서는 남한의 학자들이 제안한 여타의 향가 해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홍기문(1956)의 『향가해석』과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가 향가 해독에 있어서 『조선말력사 1』, 『조선말력사 2』에서 서술된 조선어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고대 조선어와 중세 조선어에 대해 북한 정부 수립 후 60여 년간 이루어진 북한 조선어학계의 연구 성과가 저자인 류렬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서술되어 있다. 홍기문(1956)의 『향가해석』은 남북 분단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연구 결과물로서, 한국어/조선어를 바라보는 북한의 조선어학계와 남한의 국어학계 사이의 관점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시기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전쟁 이후 북한의 조선어학계와 남한의 국어학계 사이에 학술적인 교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조선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류렬(2005)의 『향가연구』가 보이는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조선어사 연구서인 『조선말력사 1』, 『조선말력사 2』의 연구 내용 가운데 향가의 창작 시기인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기술 내용을 살펴본 후, 이 시기의 조선어에 대한 북한의 연구 결과가 류렬(2005)의 『향가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연구자들 사이에 해독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향가를 중심으로 양주동(1942)의 『고가연구』, 홍기문(1956)의 『향가해석』, 김완진(1980)의 『향가해독법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조선어사 연구: 고대 · 중세 조선어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조선말력사』 시리즈에서 조선어사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괄한 후, 향가의 창작 시기인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조선어의 특징을 북한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조선말력사』의 조선어사 시대 구분

『조선말력사』 시리즈에서는 조선어사의 시대 구분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하고 있다.

<표 2> 『조선말력사』의 조선어사 시대 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중세전기	중세중기		중세후기		현대전기	광복후기
		고려시기	리조전기				
B.C. 30세기초 ~ B.C. 3세기	B.C. 3세기 ~ A.D. 10세기초	10세기초 ~ 14세기	15세기 ~ 16세기	17세기 ~ 19세기 후반기 (1866)	19세기 후반기 (1866) ~ 1925	1926 ~ 1945	1946 ~

여기서 고대 조선어 시기는 소위 고조선 시대로 기원전 3세기초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이다. 중세 조선어 시기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 중세 전기는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중세 중기는 고려시기와 조선 전기로 구분하고 있다. 중세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인 19세기 후반(1866)까지이며, 근대 조선어 시기는 19세기 후반(1866)부터 김일성이 항일투쟁조직을 결성했다고 하는 1926년 이전까지이다. 현대 조선어 시기는 1926년부터 광복 전인 1945년까지를 전기, 광복 후를 후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세 조선어 시기의 시작을 삼국시대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따라 고대와 구분되는 중세의 시작을 봉건 국가의 성립 이후로 보고 있는 북한 사학계의 입장을 언어사 연구에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 이에 따라 북한의 조선어사 연구에서는 언어도 역사 발달 과정에 따라 끊임없이 발달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세 전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로 꽤 긴 시기를 차지한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발해의 남북국시대로 세분할 수 있지만, 『조선말력사』에서는 이를 유의미한 시대 구분으로 보지 않고 모두 중세 전기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국시대가 성립한 7~8세기 전후로 유기음의 발생과 ‘ㄱ’, ‘ㄷ’ 모음의 발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중세 중기는 고려의 남북통일에 의한 통일적 봉건국가의 성립으로 중세 전기와 구분되며, 언어적으로도 수도 이전에 따른 중심어의 변동, ‘ㅁ’, ‘ㄹ’, ‘ㅍ’, 반모음 ‘ㅇ’, 반모음 ‘ㅌ’와 같은 새로운 음운의 형성에 따른 언어의 변화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의 건국은 봉건 제도 안에서의 왕조 교체에 지나지 않으며 언어적으로도 고려시대와 그다지 큰 차

1) 이현희·최성규·김한결·정혜린·홍은영, 『북한의 1990년대 언어사와 언어학사 연구』,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12쪽.

이를 보인다고 보지 않아 15~16세기까지를 모두 중세 중기로 묶고 있다.

중세 후기는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근대국어 시기로 보는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인 1866년까지를 차지한다. 이는 다분히 북한 역사학계에서 조선 시대를 중세 봉건주의국가 시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근대 조선어 시기는 1866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1866년은 바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군민에 의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한 때이다. 북한은 이를 유럽-아메리카 자본주의열강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의 침략선을 무찌르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이라는 봉건주의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근대 시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언어의 측면에서는 특히 근대적인 사상의식, 제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시대 구분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 조선어의 시작도 김일성이 항일투쟁조직을 결성했다고 하는 192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광복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다.

2) 향가의 창작 시기와 조선어사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14수, 『균여전』에 실려 있는 11수, 『평산신씨장절공유사』에 실려 있는 1수로 모두 26수가 전해지고 있다. 류렬(2005)의 『향가연구』에서는 향가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를 삼국시대 향가와 통일신라시대의 향가로 나누고 있으며, 『균여전』과 『평산신씨장절공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는 고려시대의 향가로 분류하고 있다.

〈표 3〉 창작 시기에 따른 향가의 분류

시대	왕대/작자	향가
삼국시대	진평왕(579~632)	혜성가, 서동요
	선덕여왕(632~647)	풍요
	문무왕(661~681)	원왕생가

통일신라시대	효소왕(692~702)	모죽지랑가
	성덕왕(702~737)	현화가
	효성왕(737~742)	원가
	경덕왕(742~765)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과랑가, 도천수대비가
	원성왕(785~798)	우적가
	현강왕(875~886)	처용가
고려시대	균여(923~973)	예경제불가, 칭찬여래가, 광수공양가, 참회업장가, 수희공덕가, 청전법륜가, 청불주세가, 상수불학가, 향순중생가, 보개회향가, 총결무진가
	예종(1105~1122)	도이장가

향가의 창작 시기는 『조선말력사』의 시대 구분상으로 크게 중세 전기 시기와 중세 중기 시기에 걸쳐 있다. 여기서 중세 전기 시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의 긴 시기에 해당하는데, 류렬(2005)의 『향가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창작된 향가를 삼국시대에 창작된 향가와 남북국시대에 창작된 향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어사적으로는 이 두시기의 조선어가 명백히 구분되고 있음을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중세 중기 시기에 창작된 고려시대 향가의 해독에도 언어 발달 과정에 따라 앞선 두 시기의 향가 해독과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고대 조선어 시기부터 중세 중기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조선말력사 1·2』에서 각 시기의 조선어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고대 조선어 시기

『조선말력사 1』에서는 고대 조선어 시기를 기원전 30세기초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는 1차 문자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남한의 한국어사 연구서 대부분은 이 시기를 선사시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력사 1』에서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서, 『사기』, 『삼

국지』와 같은 중국의 역사서 등에 나타나는 고조선의 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를 이 시기 언어 연구를 위한 2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에 나온 지명 ‘玄菟’와 『후한서』의 지명 ‘蓋馬大山’을 같은 기원을 지닌 고조선의 지명 표기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玄’은 ‘검다’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조선어의 형태소를 한자의 본래 뜻을 살려 표기한 것으로, ‘蓋馬’는 ‘검다’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조선어의 형태소를 한자의 음만을 이용해 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蓋馬’의 음가 분석을 통해 고대 조선어의 음운 구조를 분석해 내고 있다. 즉 ‘蓋馬’의 당시의 한어음은 王力(1957)의 『漢語史稿』에 제시된 재구음을 참고하면 ‘ke-mea’로 볼 수 있지만, 현대 조선어의 ‘가맣다/거맣다’를 고려하면 ‘蓋馬’는 ‘kə-mə[거머]’ 내지 모음조화를 고려한 ‘ka-ma[가마]’의 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ke-mea’와 ‘kə-mə/ka-ma’의 대응 관계를 통해 고대 조선어에는 [k[기]’음을 지닌 자음이 존재 하였으며 ‘e[에]’라는 단모음은 물론 ‘ea[에이]’와 같은 이중모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석해 내고 있다. 『조선말력사 1』에서는 이와 같은 고유명사 표기의 대응 관계를 종합하여 고대 조선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그리고 음절 구조가 다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표 4〉 『조선말력사 1』의 고대 조선어 자음체계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ㅈ)		
마찰음		ㅅ		
비음	ㅁ	ㄴ		
유음		ㄹ		

* ()는 생성 중인 음소를 뜻함

〈표 5〉 『조선말력사 1』의 고대 조선어 모음체계

ㅣ		ㅍ
	ㅑ	ㅓ
	ㅕ	

〈표 6〉 『조선말력사 1』의 고대 조선어 음절구조

아 어 오 우 이
 가 거 고 구 기
 나 너 노 누 니
 다 더 도 두 디
 라 러 로 루 리
 마 머 모 무 미
 바 버 보 부 비
 사 서 소 수 시
 (자 지 조 주) 지

『조선말력사 1』에서는 이처럼 고대 조선어에는 폐음절이 없으며 모두 개음절만이 존재하며 이중·삼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에 ‘安邪’[상고음: ʔan-ia → 고대 조선 한자음: a-a]로 표기된 지명이 다른 자료에서 ‘阿那’[상고음: ʔa-nâ → 고대 조선 한자음: a-ra], ‘阿羅’[상고음: ʔa-la → 고대 조선 한자음: a-ra]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고대 조선어에서는 ‘安邪’이 실질적으로 ‘a-r-a’처럼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ㄹ’이 모음 사이에 개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중세 전기 조선어 시기

〈표 7〉 『조선말력사 1』의 중세 전기 조선어 자음체계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ㅃ)	(ㄸ)	(ㄲ)	
파찰음	평음		ㅅ		
	격음		(ㅆ)		
마찰음	평음		ㅈ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는 생성 중인 음소를 뜻함

〈표 8〉 『조선말력사 1』의
중세 전기 조선어 모음체계

ㅣ	(ㅡ)	ㅍ
	ㅋ	ㅌ
	ㅊ	(·)

* (·)는 생성 중인 음소를 뜻함

『조선말력사 1』에서는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세 조선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중세 전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 꽤 긴 시기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는 고대 조선어에서 지위가 불확실하였던 ‘ㅈ’와 새로이 등장한 연구개음 ‘ㅇ’과 후음 ‘ㅎ’가 음소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ㅍ, ㅌ, ㅋ, ㅊ’와 같은 격음을 비롯하여 모음 ‘ㅡ, ·’가 새로이 생성 중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ㅎ’은 삼국시대에 생성되었으며 ‘ㄱ’의 약화(k>h), ‘ㅂ’의 약화(p>ϕ>h)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ㅎ’은 ‘ㅂ, ㄷ, ㄱ, ㅈ’와의 결합으로 격음 ‘ㅍ, ㅌ, ㅋ, ㅊ’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ㅎ’는 고대 조선어의 ‘ㄹ’과 마찬가지로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데 쓰이는 결합 자음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ㅎ’은 구개음화로 인해 같은 마찰음 계열인 ‘ㅅ’으로의 변이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모죽지랑가〉에 쓰인 ‘史伊’는 당시의 한어음을 ‘sie-ʔie’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조선어에는 이중모음과 단모음 ‘e’, 성문 폐쇄음 ‘ʔ’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si-i’ 내지 ‘sə-i’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대 조선어에서는 모음 연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ㄹ’이 모음 사이에 개재한 ‘서-ㄹ-ㅣ’로, 중세 전기 조선어에서는 ‘ㅎ’이 개재한 ‘서-ㅎ-ㅣ’로 읽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ㅎ-ㅣ’는 구개음화로 인해 ‘서-ㅅ-ㅣ’로도 될 수 있으며, 특히 ‘서-ㅎ-ㅣ’의 경우 ‘ㅎ’의 탈락으로 인해 ‘서이’가 되어 이중모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리’, ‘서히’, ‘서시’는 모두 현대 조선어의 ‘사이’와 관련이

있는 옛 어형이며, 이 중 가장 오래된 어형을 증명하는 근거로 『월인석보』의 ‘서리’를 들고 있다. (人(신)間(간)·은 :사롭 ·서리·라<월인석보 1:9>).

한편, 『조선말력사 1』에서는 격음 ‘ㅍ, ㅌ, ㅋ, ㆁ’과 연구개음 ‘ㅇ’, 그리고 모음 ‘ㅡ, ㅛ’의 발생이 모두 7-8세기 전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는 7세기 이후의 자료로 볼 수 있는 향가에서야 이들이 표기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이전 시기의 고유명사 표기에서는 이들이 쓰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아직 유기 자음과 ‘ㅡ, ㅛ’ 모음이 음소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즉 ‘ㅛ’는 ‘ㅏ’와 ‘ㅑ’의 약화된 변이음으로서, ‘ㅡ’는 ‘ㅓ’와 ‘ㅕ’의 약화된 변이음으로서만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안민가>에서 ‘ㅡ’와 ‘ㅛ’가 ‘隱’과 ‘焉’으로 구분되는 것에 반해 <제망매가>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隱’로만 쓰이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표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조선어	중세 조선어 전기	중세 조선어 중기
마가	마가	마가
마가니	마ㄱ니	마ㄱ니
마가다	마ㄱ다	막다

그리고 이처럼 약화된 모음으로서 탄생한 ‘ㅛ/ㅡ’는 탈락하기도 하여 초성이 앞 음절의 종성이 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위의 동사 활용 패러다임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울러 종성은 아래와 같이 8세기의 지명표기에서 확인이 되어 종성 ‘ㅍ, ㅑ, ㅓ, ㅕ, 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의 향가인 <광수공양가>에서 ‘ㅇ’ 종성 표기가 등장함에 따라 연구개음 ‘ㅇ’도 7-8세기 이후에 받침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비] 종성: 시비 → 십(習比谷→習谿) 『삼국사기』 권35

- [기] 종성: 두부기 → 두복(豆夫只→同福) 『삼국사기』 권36
 [미] 종성: 가무라 → 갑우려(甘勿阿→感悅) 『삼국사기』 권36
 [니] 종성: 만노 → 만호/만오(萬內→萬呼) 『삼국사기』 권4
 [리] 종성: 수리 → 술(首爾→戌) 『삼국사기』 권35
 [이] 종성: 供乙留(공으로) <광수공양가>

마지막으로 ‘ㄷ’, ‘ㅈ’, ‘ㅊ’, ‘ㅎ’이 이 시기에 종성으로 사용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계림유사』 등의 고려시대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이 종성으로 쓰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려시대 이전에 이들이 종성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ㄴ+ㄴ> 民焉: 민+은 君隱: 군+은 呑隱: 나+ㄴ

이처럼 『조선말력사 1』에서는 종성의 발생이 7-8세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주제 보조사 ‘-ㄴ’이나 동명사어미 ‘-ㄴ’과 같은 형태소가 이러한 종성과 결합하게 되면 이전 시기와 달리 자음과 자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어버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자음과 자음 사이에 ‘·’와 ‘-’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조선말력사 1』는 아직 이 시기에 자음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선말력사 1』에서는 삼국시대에 반모음 ‘i’를 포함한 이중·삼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가에 쓰인 ‘自矣[저이]’와 같은 표기를 통해 7-8세기를 전후로 반모음 ‘i’를 포함하는 이중·삼중 모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세 전기 끝무렵에는 어느 정도 음소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음절 구조의 발생 덕분에 반모음 ‘u’를 포함하는 이중·삼중 모음도 형성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3) 중세 중기 조선어 시기

『조선말력사 2』에서는 중세 중기 조선어 시기를 크게 고려시대와 15~16

세기의 조선 전기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격음 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유성음인 ‘ㄹ’과 ‘ㄷ’의 생성 및 경음인 ‘ㅍ’과 ‘ㅎ’의 생성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모음 ‘ㅡ’와 ‘·’도 이 시기에 확실하게 음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표 9〉 『조선말력사 2』의 중세 중기 조선어 자음체계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ㅇ
	경음		ㅆ		ㅎ
	유성음	ㄹ	ㄷ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자음군: ㅃ, ㅆ, ㅉ, ㅊ, ㅌ, ㅍ; ㅅ, ㅆ, ㅉ, ㅊ, ㅌ, ㅍ

〈표 10〉 『조선말력사 2』의 중세 중기 조선어 모음체계

ㅣ	ㅡ	ㅓ
	ㅜ	ㅗ
	ㅝ	ㅛ

또한 15~16세기의 조선어에서 자음군이 확고히 쓰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자음군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ㅡ’ 모음의 완전한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에 있었던 모음 충돌회피 현상이 약화됨으로써 자음 충돌 회피 현상도 같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반모음 ‘ㅣ’를 포함하는 이중·삼중 모음도 이전 시기에 이어서 활발히 쓰이고 있었으며, 반모음 ‘ㅓ’를 포함하는 이중·삼중 모음도 확고하게 자

리를 잡아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3. 류렬(2005) 『향가연구』의 해독 양상 고찰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조선말력사 1·2』의 조선어사 서술 내용이 류렬(2005) 『향가연구』의 해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삼국시대의 향가인 <서동요>, 남북국시대의 향가인 <제망매가>, 고려시대의 향가인 <예경제불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²⁾

1) 삼국시대 대표 향가: <서동요>

류렬(2005) 『향가연구』는 7세기 무렵의 향가를 해독함에 있어서 『조선말력사 1』에서 서술한 고대 조선어 및 7세기 이전의 중세 전기 조선어의 특징을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표 11〉 남북의 향가 연구서에서 보이는 <서동요>의 해독 차이

노래의 원문	양주동(1942)의 해독	김완진(1980)의 해독	홍기문(1956)의 해독	류렬(2005)의 해독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善化公主니른 늬 그스지 얼어두고 맛등방을 바미 몰 안고 가다	善化公主니리른 늬 그속 어러 두고 薯童 방을 바매 알할 안고 가다	선화공주니른 늬 그스기 얼어 두고 서동 지를 바브란 안고 가다	마가시 공주님은 남겨서기 얼어두고 마보기실 밤이 몰 안고 가다

2)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대표하는 향가로 <서동요>와 <제망매가>를 선정한 것은 같은 시대의 다른 향가에 비해 음가자로만 이루어진 난해구의 수가 비교적 적어 향가 연구자들 사이에 해독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향가에는 모두 최행귀의 한역시도 존재하고 또 시의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화엄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앞선 두 시기의 향가에 비해 향가 사이의 해독 결과의 편차가 적다. 따라서 어느 향가를 선택하더라도 무방하므로 『균여전』에 가장 먼저 수록된 <예경제불가>를 고려시대의 대표향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1]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문 <양주동(1942)>

善化公主니리문 <김완진(1980)>

선화공주니문 <홍기문(1956)>

마가시 공주님은 <류렬(2005)>

류렬(2005)이 다른 연구서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善化’를 ‘마가시’로 해독한 것이다. ‘善化’를 한자어 표기로 보지 않고 고유어 표기로 보는 것은 한자 ‘化’가 가진 뜻을 살려서는 ‘善化’를 ‘좋은 꽃’, ‘이름다운 꽃’의 의미를 지닌 사람의 이름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름 표기에는 애초에 ‘善花’가 쓰였을 것이며 이는 혼독하여 고유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음독되어 읽혀 ‘善化’로도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善’을 ‘마’로 혼독한 것은 『삼국사기』 권35에 나오는 지명표기의 ‘買谷’과 ‘善谷’에서 관찰되는 ‘買’와 ‘善’의 대응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買’는 ‘善’의 훈을 표기한 음가자로 본 것인데, 이 시기의 조선어에서는 반모음 ‘ㅣ’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買’의 음을 [maj]가 아니라 [mal]로 본 것이다. ‘花’는 15~16세기의 한글자료에서 ‘꽃’으로 혼독되는데, 류렬(2005)에서 이를 ‘가시’로 혼독하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 456)에서 ‘花郎’을 ‘가시나’로 해독하고 현대 조선어의 처녀를 의미하는 ‘가시나’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해독은 <서동요>의 창작 시기는 모음 탈락에 의한 CVC의 음절구조가 생성된 시기가 아니라는 점, ‘ㅈ’도 음소로서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점도 고려한 해독으로 보인다.

‘公主’를 ‘공주’로 해독한 홍기문(1956)과 달리 굳이 ‘공주’로 해독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이 시기에 반모음 ‘ㅣ’가 없었다고 보아 ‘主’를 ‘쥬’보다는 ‘주’로 음독하였을 것이라고 본 것에 기인한 해독이다.

‘主隱’의 ‘主’는 김완진(1980)에서 일본 자료에서 ‘主’를 ‘nirim’으로 주기한 것에 주목하여 ‘니림’으로 해독하였다. 류렬(2005)에서는 ‘主’를 기원적으

로 ‘니리무→니림→님’으로의 변화 과정을 겪은 훈을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任那’와 ‘主浦’의 대응관계를 통해(『증보문헌비고』 권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2) 이 시기에는 ‘님’이라는 어형이 쓰였다고 보는 점에서 다소 의견이 다르다. 아울러 ‘ㄹ’의 종성화로 인해 보조사 ‘-ㄴ’과의 자음 충돌을 막기 위해 결합모음 ‘·/ㅡ’가 개재한 것을 ‘隱’을 이용해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他密只嫁良置古

늬 그스지 얼어두고	<양주동(1942)>
늬 그속 어러 두고	<김완진(1980)>
늬 그스기 얼어 두고	<홍기문(1956)>
남겨서기 얼어두고	<류렬(2005)>

류렬(2005)이 다른 연구서들과 달리 ‘他’를 ‘늬’가 아니라 ‘남’으로 해독한 것은 아직 이 시기에 ‘·’가 음소로서 정착하지 못했음을 감안한 해독이다. 앞서 검토한 자음 충돌의 회피를 위한 ‘·/ㅡ’는 음소가 아니라 ‘ㅏ’나 ‘ㅑ’의 변이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密只’를 다른 연구서와 달리 ‘그스기’나 ‘그속’으로 해독하지 않고 ‘거서기’로 해독한 것도 이 시기에 아직 ‘ㄷ’와 ‘ㅡ’가 음소로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독으로서는 ‘ㅏ’이 옳고, ‘ㅡ’의 기원형인 ‘ㅑ’가 해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서기’로 해독한 것이다.

[3] 薯童房乙

맛둥방을	<양주동(1942)>
薯童 방을	<김완진(1980)>
셔둥 지블	<홍기문(1956)>
마보기실	<류렬(2005)>

류렬(2005)은 백제 武王이 속칭으로 ‘末通大王’으로 불리고 어렸을 적에 薯童으로도 불렸다는 『고려사』를 인용하여 다른 연구서에서 ‘薯’를 ‘마’로 혼독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를 종성 ‘ㅇ’이 막 쓰이기 시작한 시기로 간주하여 ‘童’을 [동]으로 음독하는 것보다는 ‘-보’로 혼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薯童’을 ‘마보’로 해독하였다. 류렬(1983: 437)에서 삼국시대의 지명 표기를 검토하며 ‘童’이 [보]라는 음을 표기하는 ‘伏’, ‘福’, ‘卜’, ‘巴’로도 쓰인다는 점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한 해독으로 보인다.

‘房’도 당시에 한자어가 쓰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집’을 의미하는 고유어로 혼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 짓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쌍화점>’를 참고하여 ‘집’의 옛말이 ‘깃’이라고 보았으며 ‘깃 소(巢)(『훈몽자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깃’을 더 오래된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모음 탈락으로 인한 종성 ‘시’ 생성되었다고 보지 않아 그 어형을 ‘기시’로 추정하였다.

[4] 夜矣卯乙抱遣去如

바미 몰 안고 가다 <양주동(1942)>

바매 알흠 안고 가다 <김완진(1980)>

바므란 안고 가다 <홍기문(1956)>

밤이 몰 안고 가다 <류렬(2005)>

류렬(2005)은 다른 연구서와 달리 ‘矣’를 반모음 ‘이’가 포함된 ‘이’나 ‘비’로 해독하는 것은 조선어사의 역사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속격조사를 표기하는 ‘矣’를 모두 일관되게 ‘이’로 해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조선어는 주격, 속격, 여위격으로 나뉘지 않고 모두 ‘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양주동(1942)처럼 ‘卯’를 음독하여 [묘]가 아닌 [모]로 해독하였는데, 이는 반모음 ‘이’가 이 당시에 쓰이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乙’은 종성 ‘-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 ‘卯乙’을 어간형 부사로 쓰인 동사

어간 ‘몰-’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류렬(2005) 『향가연구』에서는 삼국시대의 향가 해독에 있어 한자 어보다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한 후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유어를 재구하여 향가를 해독한다. 이러한 재구에는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 사람, 벼슬, 고장이름의 표기를 통하여』의 연구 결과가 최대한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선말력사 1』에서 서술된 당시의 조선어의 음운 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독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 결과 음소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한 ‘·’, ‘△’와 이중 모음 등도 해독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종성 표기는 주로 공명음인 ‘ㄴ, ㄹ, ㅁ’ 정도를 인정하며 장애음인 ‘ㄱ, ㄷ, ㅂ’ 등은 모음과 함께 쓰이는 형태로 해독하는 특징을 보인다.

2) 남북국시대 대표 향가: 〈제망매가〉

류렬(2005) 『향가연구』에서는 남북국시대의 향가를 해독함에 있어서 7-8세기 전후에 발생한 조선어의 중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표 12〉 남북의 향가 연구서에서 보이는 〈제망매가〉의 해독 차이

노래의 원문	양주동(1942)의 해독	김완진(1980)의 해독	홍기문(1956)의 해독	류렬(2005)의 해독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禱毗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淨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利良逢乎吾 道修良得是古如	生死路隱 에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사도 몰다 니르고 가는닛고 어느 그솔 이른 브르매 이에 저에 떠덜 님다이 흐든 가제 나고 가는골 모드흔더 아으 彌陀利에 맞보올 내 도닷가 기드리고다	生死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느다 말사도 몰다 니르고 가는닛고 어느 그솔 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뜨러덜 님곤 흐든 가제라 나고 가는 골 모드흔더 아야 彌陀利아 맞보올 나 도 닷가 기드리고다	죽사릿 길은 이리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도 모드 니르고 가는닛고 어느 그솔 이른 브르매 이리 더리 떠러 덜 님다벼 흐든 가제 나고 가는 골 모드흔더 아야 彌陀利에 맞보호 내 도 닷가 기드리고다	죽살이 길흔 이리 이시하미 저홀이고 난 가느다 말도 모드 니르고 가는니시고 어누 가살 이른 바르미 이리더리 부덜어덜님다벼 가든 가제라 나고 가는 골 모드흔더 아으 미다덜야 마스나홀 나 길 다스라 기드리고다

[1] 生死路隱

生死路는 <양주동(1942)>

生死 길흔 <김완진(1980)>

죽사릿 길은 <홍기문(1956)>

죽살이 길흔 <류렬(2005)>

류렬(2005)은 ‘生死’를 음독한 남한의 향가연구서와 달리 홍기문(1956)의 해독에 따라 고유어 ‘죽살이’로 혼독하고 있다. ‘路’은 고유어 ‘길’로 혼독하고, ‘隱’은 토인 ‘-흔’을 표기하기 위한 음가자로 보고 있다. 이때 ‘ㅎ’은 ‘길 ㅎ’처럼 형태소의 말음 표기가 아니라 토인 ‘-은’에 붙은 결합 자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2]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예 이사매 저히고 <양주동(1942)>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김완진(1980)>

이리 이사미 저히고 <홍기문(1956)>

이리 이시하미 저흠이고 <류렬(2005)>

류렬(2005)은 홍기문(1956)과 같이 ‘此矣’를 ‘이리’로 해독하고 있는데, ‘此’는 지시대명사 ‘이’로 혼독하고, ‘矣’는 음가자로 쓰여 여처격의 ‘ㅣ’를 표기하는 것으로 해독한 것이다. 이러한 해독은 남북국시대에 들어서도 ‘·’가 여전히 음소로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리’의 ‘ㄹ’은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결합 자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有阿米’의 ‘有’는 ‘잇-’이 아니라 어말에 모음을 보유한 고행 ‘이시-’로 해독하고 있다. 그리고 ‘阿米’는 ‘하미’로 해독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정중토로 보는 ‘-오-’와 명사형어미 ‘-ㅁ’의 결합형인 ‘-움’의 변종으로서 ‘-암’을 설정하고 여기에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결합 자음 ‘ㅎ’을 개재시킨 것이다.

그리고 ‘ㅎ’ 개재에 대한 근거로서 <모죽지랑가>에 등장하는 ‘有叱下是’의 ‘下’를 들고 있다. ‘米’를 ‘미’나 ‘매’로 해독하지 않는 것은 ‘矣’를 ‘이’로 해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次盼伊遣’는 순수하게 음차하여 해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3] 𠵽隱去內如辭叱都

나난 가늑다 말스도	<양주동(1942)>
나난 가늑다 말스도	<김완진(1980)>
나난 가늑다 말도	<홍기문(1956)>
난 가늑다 말도	<류렬(2005)>

류렬(2005)이 ‘𠵽’를 ‘나’로 해독한 것은 다른 연구서와 동일하지만, 후행하는 ‘隱’을 ‘-늑’이 아니라 ‘-ㄴ’으로 해독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학자 해독서들과 다른 점이다. 이는 주제 보조사의 기본형을 ‘-ㄴ’으로 간주하며, 이에 선행하는 모음 ‘·/ㅡ’는 자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결합되는 모음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𠵽[나]’가 모음으로 끝나므로 자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결합 모음 ‘·/ㅡ’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𠵽隱’을 ‘난’으로 해독한 것이다. 기존의 해독인 ‘-늑’은 후대에 발생한 이형태로 간주하여 잘못된 해독으로 보았다.

다른 연구서와 마찬가지로 류렬(2005)에서는 ‘去內如’의 ‘內’를 ‘ㄴ’로 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 조선어에서 [노]로 읽히던 ‘內’가 남북국시대에 이르면 모음이 약화되어 음성적으로 [ㄴ]이 되었음을 고려한 해독으로 보인다.

한편 류렬(2005)에서는 ‘辭叱都’의 ‘叱’를 종성 ‘ㄹ’의 표기로 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해독은 ‘尼師[니시]스’, ‘尼叱[니시]스’, ‘齒叱[니시]스’, ‘齒理[니리]’와 같이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에서 보이는 ‘스-ㄹ’ 대응을 고려한 것이다.

[4]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물다 니르고 가느닛고 <양주동(1942)>

물다 니르고 가느닛고 <김완진(1980)>

모드 니르고 가느닛고 <홍기문(1956)>

모드 니르고 가느니시고 <류렬(2005)>

류렬(2005)이 ‘毛如’의 ‘如’를 [다]가 아니라 [드]로 해독한 것도 앞서 ‘內’을 [노]가 아니라 [느]로 해독한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즉 중세국어의 부정 부사 ‘못’의 변천 과정을 ‘모다>모드>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毛如’의 관련형인 ‘毛冬’는 고대 조선어의 [모도]가 [모드]로 약화되었을 때의 표기로 보고 있다.

다른 연구서들과 달리 류렬(2005)에서는 ‘叱’를 종성 자음 ‘ㅅ’의 표기로 보지 않고 일관되게 모음 ‘ㅣ’를 가지고 있는 ‘시’로 해독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ㅅ’이 받침으로 확고히 쓰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去內尼叱古’의 ‘叱’는 ‘이시-’의 준말인 ‘시’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5]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ㄱ술 이른 브르매 <양주동(1942)>

어느 ㄱ술 이른 브르매 <김완진(1980)>

어느 ㄱ술 이른 브르매 <홍기문(1956)>

어누 가살 이른 바르미 <류렬(2005)>

류렬(2005)에서는 다른 연구서와 달리 ‘於內’를 [어느]가 아니라 [어누]로 해독하는데, 이는 ‘느’의 옛형태인 ‘누’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秋察’을 ‘ㄱ술’이 아니라 ‘가살’로 해독한 것도 이 시기에 ‘ㅅ’이 쓰이지 않았으며 ‘ㅣ’도 음소로서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風未’의 ‘未’를 ‘매’가 아니라 ‘미’로 해독한 것도 이 시기에는 이중모음의 존재

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때의 ‘-ㅣ’는 여처격으로 처리하고 있다.

[6]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저에 떠딜 닙다이 <양주동(1942)>

이에 더에 뿌러딜 닙근 <김완진(1980)>

이리 더리 떠러 딜 닙다비 <홍기문(1956)>

이리더리 부덜어딜 닙다비 <류렬(2005)>

다른 연구서와 달리 류렬(2005)이 ‘此矣’를 ‘이리’로 해독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彼’를 ‘더’가 아니라 ‘더’로 해독한 것은 이 시기에 반모음 ‘ㅣ’가 존재하지 않아 이중모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浮良’를 ‘떠’나 ‘뿌러’, ‘떠러’로 해독하지 않고 ‘부더러’로 해독한 것도 이 당시에 자음군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해독이다. 그리고 ‘如’를 ‘다이’나 ‘다비’로 해독하지 않고 ‘다비’로 해독한 것도 이 어형이 ‘다비>다비>다이’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이 시기에는 순경음 ‘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 一等隱枝良出古

흐든 가재 나고 <양주동(1942)>

흐든 가지라 나고 <김완진(1980)>

흐든 가재 나고 <홍기문(1956)>

가든 가지라 나고 <류렬(2005)>

류렬(2005)에서 다른 연구서와 달리 ‘一等隱’을 ‘가든’으로 해독한 것은 ‘하냐’를 의미하는 어휘의 역사를 ‘가다나>가드<나>가든’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류렬(1983: 522)에서 검토한 지명표기에서 ‘-ㅣ’와 ‘곧-’의 의미를 나타내는 ‘直’이 대응된다는 점, 또 관형사 ‘한’과 형용사 ‘같다’의 활용

형 ‘같은’이 서로 의미가 대응되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가다나’에서 ‘ㄱ’이 약화되어 ㅎ이 되면 ‘하다나>하드ㄴ>한나>하나>한’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계림유사』의 ‘河屯’과 중세국어의 ‘하나ㅎ’ 등과의 관련성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枝良’를 ‘가지라’로 해독하는 것은 ‘枝’를 ‘가지’로 해독하고 ‘良’를 ‘야’로 해독한 후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ㄹ’을 개재시켜 해독했기 때문이다.

[8]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논골 모드온더	<양주동(1942)>
가논 골 모드론더	<김완진(1980)>
가논 골 모듈흔더	<홍기문(1956)>
가논 골 모드흔더	<류렬(2005)>

류렬(2005)에서는 ‘毛冬乎丁’의 ‘毛冬’를 ‘모드’로 해독하며 동사 ‘모르-’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홍기문(1956)의 견해에 따라 ‘毛冬’를 ‘모르-’의 옛형태인 동사 어간 ‘모드-’의 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乎’를 ‘오’가 아닌 ‘호’로 해독한 것은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결합자음 ‘ㅎ’이 개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9]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아으彌陀刹애 맛보올 내	<양주동(1942)>
아야彌陀刹아 맛보올 나	<김완진(1980)>
아야彌陀刹애 맛보호 내	<홍기문(1956)>
아으 미다달야 마스나홀 나	<류렬(2005)>

류렬(2005)에서 ‘彌陀刹’을 ‘미다달’로 해독한 것은 당시의 조선 한자음이 ‘미다달’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刹’의 종성이 ‘ㄹ’이므로 ‘良’는

‘야’로만 해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逢乎’를 ‘마스나홀’로 해독한 것은 우선 ‘逢’을 ‘맛나’의 옛 형태인 ‘마스나’로 혼독하고 여기에 ‘-오-’가 결합할 때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ㅎ’이 첨가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맛나’가 아니라 ‘마스나’로 해독한 것은 이 시기에 ‘스’이 받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0] 道修良待是古如

道닷가 기드리고다 <양주동(1942)>

道 닷가 기드리고다 <김완진(1980)>

道 닷가 기드리고다 <홍기문(1956)>

길 다스라 기드리고다 <류렬(2005)>

류렬(2005)이 ‘道’을 음독하지 않고 ‘길’로 혼독하여 해독한 것은 이 당시에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쓰였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이다. 그리고 ‘修良’을 ‘다스라’로 해독한 것은 ‘뉘다’의 옛형태를 ‘다술다’로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류렬(2005)의 『향가연구』는 남북국시대의 향가 해독에 있어서 7-8세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음운 변화를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전 시기의 향가 해독과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모음 ‘·’를 해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발생하기 시작한 격음은 해독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던 ‘ㄷ’, ‘ㅃ’과 자음군 또한 해독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ㄱ, ㄷ, ㅂ, ㅅ, ㅈ’와 같이 공명음이 아닌 장애음은 종성 표기에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모음을 갖는 것으로 해독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중 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결합 자음 ‘ㅎ’과 ‘ㄹ’을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해독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당시 성행하였던 불교의 용어는 한자어로 해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고려시대 대표 향가: 〈예경제불가〉

류렬(2005) 『향가연구』에서는 중세 중기 조선어에 발생하였다고 분석한 조선어의 특징을 고려시대의 향가를 해독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표 13〉 남북의 향가 연구서에서 보이는 〈예경제불가〉의 해독 차이

노래의 원문	양주동(1942)의 해독	김완진(1980)의 해독	홍기문(1956)의 해독	류렬(2005)의 해독
心未筆留 慕呂白乎隱仏前衣 拜內乎隱身萬隱 法界毛叱所只至去良 塵塵馬洛仏叱利亦 刹刹每如遊里白乎隱 法界滿隱隱仏体 九世尽良礼爲白齊 歎曰 身語意業无疲厭 此良夫作沙毛叱等耶	므슴미 부드루 그리슬은 부터 前에 저부은/것누은 모몬 法界뭏드록 니르가라 塵塵마락 부터스刹이 刹刹마다 외시리슬본 法界 초산 부터 九世 다아 禮하습져 아으 身語意業无疲厭 이에 브즐 슷다라	므슴미 부드로 그리슬본 부터 알피 저누은 모마는 法界 업드록 니르가라 塵塵마락 부터스刹이 刹刹마다 모리슬본 法界 초산 부터 九世 다으라 절하습져 아야 身語意業无疲厭 이렁 무르 지사뭏드야	므슴미 부드루 그리슬본 부터 알피 저르누은 모몬 법계 뭏드록기 니르고야 진진마다 부터스 더리 덜덜마다 외시리슬본 법계 초산 부터 구세 다아 레하습져 아야 신어의업무괴염 이러 브질 사맛다라	므슴미 부드루 그리슬본 부터 아라히 저스누은 모몬 법계 믏시드록기 니르가라 드를 마라 부터시 덜히 덜덜마다 모시리슬본 법계 초산 부터 아롬누 다하 레하습져 아으 신어의업무괴염 이라 부질사마시다라

[1] 心未筆留

므슴미 부드루 〈양주동(1942)〉

므슴미 부드로 〈김완진(1980)〉

므슴미 부드루 〈홍기문(1956)〉

므슴미 부드루 〈류렬(2005)〉

이전 시기의 향가 해독과 달리 류렬(2005)는 다른 연구서와 마찬가지로 ‘·’와 ‘△’를 이용하여 ‘心’을 ‘므슴’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는 중세 중기 조선어에 이르러 ‘△’와 ‘·’가 음소로서 확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未’는 이중모음형인 ‘미’가 아니라 ‘미’로 해독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이 시기에 이중모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므슴미’의 ‘-ㅣ’는 주격과 속격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ㅣ’로 간주한다. ‘筆留’는 ‘筆’을 ‘븐’의 고형인 ‘부두’로, ‘留’를 조격의 ‘-루’로 보아 ‘부두루’로 해독한다. 이는 ‘으로/으료’는 ‘乙留’로 구분되어 표기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2] 慕呂白乎隱仏体前衣

그리슌은 부터 前에 <양주동(1942)>

그리슬븐 부터 알피 <김완진(1980)>

그리슬븐 부터 알피 <홍기문(1956)>

그리슬븐 부터 아라히 <류렬(2005)>

류렬(2005)는 ‘白乎’도 다른 연구서와 해독이 크게 다르지 않게 ‘슬븐’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순경음 ‘빙’이 존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仏体’도 이 시기에 ‘ㅌ’이 음소로서 완전히 정착하였다고 보아 ‘부터’로 해독한다. ‘前衣’는 ‘아라히’로 해독하는데, ‘前’에 대응되는 옛말을 ‘아라’, ‘衣’를 여처격으로 쓰인 ‘-이’로 파악하고 모음충돌의 회피를 위한 결합자음 ‘ㅎ’을 개제시켰기 때문이다. ‘아라’는 과거를 뜻하는 ‘아리’와 직접적인 선대형으로 파악한 듯한데, ‘아라’의 ‘라’의 모음이 약화되어 ‘아르’가 되고 여기에서 또 모음 ‘·’가 탈락하여 ‘알’이 된 후 ‘비’이 결합하여 ‘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3] 拜內乎隱身萬隱

저부온/젓누온 모몬 <양주동(1942)>

저누온 모마논 <김완진(1980)>

저르누흔 모몬 <홍기문(1956)>

저스누흔 모몬 <류렬(2005)>

류렬(2005)이 다른 연구서와 달리 ‘拜’를 ‘저스’로 해독한 것은 ‘절하다’의 옛말을 ‘젓다’로 파악하고 ‘ㅅ’이 ‘ㄷ’로 음운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젓다’는 중세국어의 ‘절다’를 잘못 분석한 것이며, ‘젓다’의 변이형으로 판단한 ‘절다’는 ‘절+-(-ㅎ)--+(-습)--+(-야)’로 분석되는 ‘저스’와 잘못 분석한 결과로 생각된다.

[4] 法界毛叱所只至去良

法界 못드록 니르가라 <양주동(1942)>

法界 업드록 니르거라 <김완진(1980)>

법계 못드로기 니르고야 <홍기문(1956)>

법계 모시드로기 니르가라 <류렬(2005)>

류렬(2005)은 ‘毛叱所只’는 ‘모시드로기’로 해독하고 ‘마치도록’의 옛말로 보았다. ‘毛叱’는 ‘못-’의 고행인 ‘모시’로 해독한 것이다. 그는 차자표기자료에서 ‘所’를 ‘바’로 해독하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공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데’의 고행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데’의 고행을 ‘다라/더러/도로’로 보고, ‘더러’에서 ‘ㄹ’이 탈락하여 ‘데’가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다라’와 ‘도로’는 이러한 ‘더러’의 이형태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所只’의 ‘所’를 ‘더러’의 이형태인 ‘도로’를 표기한 것으로 본 후, ‘오’가 ‘으’로 약화된 어형인 ‘드로’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두에서 ‘-도로기/도록’으로 해독되는 ‘巴只’과 ‘所只’이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해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5] 塵塵馬洛仏体叱刹亦

塵塵마라 부터스刹이 <양주동(1942)>

塵塵마라 부터 췌이역 <김완진(1980)>

진진마다 부터스 더리 <홍기문(1956)>

드틀 마라 부터시 덜히 <류렬(2005)>

류렬(2005)은 다른 연구서와 달리 ‘塵塵’을 고유어로 혼독하여 ‘드틀’로 해독하였다. 그리고 ‘馬洛’는 ‘마다’로 해독되는 ‘每如’의 변이형인 ‘마라’로 보았다. ‘마라’과 같이 ‘ㄱ’ 종성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에서 종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참고한 듯하다. 그리고 ‘仏体叱’의 ‘叱’는 이전 시기의 향가 해독과 같이 종성 표기가 아니라 ‘시’

로 일관되게 해독하며 사이시옷의 옛 형태로 간주한다. ‘刹亦’은 ‘덜히’로 해독하고 있는데, ‘刹’의 훈을 ‘덜’로 파악하고 ‘亦’를 주격조사 ‘-ㅣ’로 파악한 후 ‘ㄹ’과 ‘ㅣ’ 사이에 개재자음 ‘ㅎ’이 들어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 刹刹每如邀里白乎隱

刹刹마다 피시리슬븐 <양주동(1942)>

刹刹마다 모리슬븐 <김완진(1980)>

덜덜마다 피시리슬븐 <홍기문(1956)>

덜덜 마다 모시리슬븐 <류렬(2005)>

이 구는 류렬(2005)와 다른 향가 해독서의 해독에 큰 차이가 없어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다.

[7] 法界滿賜隱仏体

法界 찬산 부터 <양주동(1942)>

法界 찬신 부터 <김완진(1980)>

법계 찬산 부터 <홍기문(1956)>

법계 찬신 부터 <류렬(2005)>

이 구도 네 종류의 향가 해독서의 해독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류렬(2005)은 양주동(1942), 홍기문(1956)과 달리 ‘滿賜隱’의 ‘賜’를 15-16세기의 ‘-샤’에 이끌리지 않고 김완진(1980)처럼 ‘시’로 해독하였다.

[8] 九世尽良礼為白齊

九世 다아 禮 ㅎ슌져 <양주동(1942)>

九世 다으라 절하슌져 <김완진(1980)>

구세 다아 레ㅎ슌져 <홍기문(1956)>

아홉누 다하 레하슌져 <류렬(2005)>

이 구도 앞 선 두 구와 마찬가지로 네 연구자의 해독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류렬(2005)은 다른 연구서들과 달리 ‘九世’를 고유어 ‘아홉 누’로 혼독하였으며, ‘𪎠良’는 ‘다하-’의 활용형으로 보아 ‘다하’로 해독하였다. ‘다으-’는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9] 歎曰 身語意業无疲厭

아으 身語意業无疲厭 <양주동(1942)>

아야 身語意業无疲厭 <김완진(1980)>

아야 신어의업무피염 <홍기문(1956)>

아으 신어의업무피염 <류렬(2005)>

이 구는 한어로 되어 있어서 해독상에 큰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다.

[10] 此良夫作沙毛叱等耶

이에 브즐 스몏다라 <양주동(1942)>

이렁 므르 지사몏드야 <김완진(1980)>

이러 브질 사몏다라 <홍기문(1956)>

이라 부질사마시다라 <류렬(2005)>

류렬(2005)은 ‘此良’에 대해 ‘이러하다’의 ‘이러/이랴’로 해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혹은 지시대명사 ‘이’에 여치격의 ‘야’로 해독한 후 개재자음 ‘ㅎ’가 결합한 ‘이하’일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夫作’은 대부분의 향가 해독서와 같이 ‘常’을 의미하는 고유어 ‘부질’의 표기로 보았으며, ‘沙毛叱等耶’는 ‘사마시다라’로 해독하였다. ‘沙毛’는 동사 어간 ‘삼-’에 연결어미 ‘-야’가 결합된 ‘사마’로 본 듯하다. 여기에 ‘叱’는 ‘이시-’의 변이형 ‘시-’로 보았는데, 이는 ‘叱’를 종성 표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모음이 포함된 것으로 해독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等’는 선어말어미 ‘-더-’의 옛 형태인 ‘-다-’로 파악하였

으며 ‘耶’는 ‘아’로 해독하되 모음충돌 회피를 위해 ‘ㄹ’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류렬(2005) 『향가연구』는 앞선 두 시기의 향가 해독과 달리 중세 중기 조선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향가를 해독하고 있다. 이 시기의 향가 해독에 있어서 이전 시기보다는 한자어를 조금 더 살려 해독을 시도하고 있으며, 10세기 이후의 조선어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해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와 ‘빙’이 쓰이고 있으며 이중모음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확고하게 음소로 자리를 잡은 ‘ㅋ, ㅌ, ㅍ, ㅊ’와 같은 격음도 해독에 활용하며 자음군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시기의 향가 해독과 달리 다른 향가 해독서의 해독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이전 시기 향가의 해독과 같이 장애음의 중성 표기는 여전히 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한 결합 자음 ‘ㅎ’, ‘ㄹ’의 사용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4. 맺음말

북한은 정부 수립 후 60년 동안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어 연구의 성과를 총 63권의 『조선어학전서』의 형태로서 2005년에 발간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와 방법론에 입각하여 집필된 이론서 및 규범서로서, 권4부터 권10까지의 『조선말력사 1~7』 시리즈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조선어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말력사 1·2』는 북한의 대표적인 조선어학자인 류렬(1918~2004)이 집필하여 고조선시대부터 16세기까지의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조선어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류렬은 『조선어학전서』 권13에 해당하는 『향가연구』(2005)도 집필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선말력사 1·2』의 서술 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말력사』에서는 조선어사의 시대 구분을 크게 고대 조선어 시기, 중세 조선어 시기, 근대 조선어 시기, 현대 조선어 시기로 구분하는데, 향가의 창

작 시기는 이 구분상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의 중세 전기 시기와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중세 중기 시기에 걸쳐 있다. 따라서 류렬(2005)의 『향가연구』는 삼국시대에 창작된 향가와 남북국시대에 창작된 향가, 고려시대에 창작된 향가로 구분하고 언어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다른 해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향가 해독은 당시에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최대한 고유어로 해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말력사 1』에서 서술된 당시의 조선어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당시에 음소로 성립하지 못했다고 본 ‘·’, ‘△’와 이중 모음 등도 해독에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중성 표기는 주로 공명음인 ‘ㄴ, ㄹ, ㅁ’만을 인정하며 장애음인 ‘ㄱ, ㄷ, ㅂ’ 등은 반드시 모음과 함께 쓰이는 형태로 해독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국시대의 향가 해독은 7-8세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음운 변화를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 시기를 전후로 발생한 것으로 본 모음 ‘·’를 해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던 자음군과 음소 ‘△’, ‘빙’을 비롯하여 당시에 막 발생하기 시작 격음은 해독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전 시기의 향가 해독과 같이 ‘ㄱ, ㄷ, ㅂ, ㅈ, ㅅ’와 같은 장애음은 중성 표기에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모음을 갖는 것으로 해독하며, 이중 모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결합자음 ‘ㅎ’과 ‘ㄹ’을 해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고유어로 해독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불교 용어는 한자어로 해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향가는 앞선 두 시기와 달리 중세 중기 조선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해독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어의 어휘 체계에 한자어의 침투가 더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전 시기보다 한자어 해독이 더 늘었으며, 10세기 이후의 조선어 음운 체계에 편입된 ‘△’와 ‘빙’, 이중모음 등이 해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음소로 확고히 성립한 격음을 비롯하여 자

음근도 해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음의 종성 표기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결합 자음 ‘ㅎ’, ‘ㄹ’도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해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류렬(2005)의 『향가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조선어사의 연구 성과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삼국시대의 향가, 남북국시대의 향가, 고려시대의 향가를 해독함에 있어 각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음운 체계에 맞추어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은 향가에 쓰인 표기 그 자체만을 귀납하여 이루어졌다고보다는 기존에 이루어진 조선어사 연구 성과에 기대어 연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이 과정에서 이용된 조선어사에 대한 지식은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어휘 해독은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에 대해 연구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해독하고 있으며, ‘ㄱ, ㄷ, ㅂ, ㅅ, ㅈ’와 같은 장애음은 종성 표기에 이용하지 않거나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한 결합 자음 ‘ㅎ’, ‘ㄹ’의 존재를 인정하여 향가 해독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류렬(2005) 『향가연구』의 향가 해독에 활용되는 조선어사적 지식은 남한의 국어사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국어사적 지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한의 국어사학계로서는 그가 주장한 향가 해독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의 해독 결과는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인 류렬(1983)을 비롯하여 『조선말력사 1·2』에서 축적되어 온 일련의 학술적 연구 성과에 힘입어 도출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향가 해독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류렬(2005) 『향가연구』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이루어진 중세 이전의 조선어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저서

- 권재일,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12.
- 김완진,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류 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_____, 『향가연구』, 서울: 박이정, 2003.
- _____, 『조선말력사 1』, <조선어학전서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_____, 『조선말력사 2』, <조선어학전서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_____, 『조선말력사 5』, <조선어학전서8>,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_____, 『향가연구』, <조선어학전서1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박지용 외 편,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2012.
- 양주동, 『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 유창균,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1994.
- 이득춘·임형재·김철준 편, 『광복후 조선어 논저 목록 지침서』, 역락, 2001.
- 정렬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홍기문, 『향가해석』, 과학원, 1956.
- _____,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
-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 王 力, 『漢語史稿』, 科學出版社, 1957.

2. 논문

- 김무림, 『북한의 향가연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945~1990』 1, 녹진, 1990.
- 이상혁,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 이현희·최성규·김한결·정혜린·홍은영, 『북한의 1990년대 언어사와 언어학사 연구』,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2018.
-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 『朝鮮彙報』 4, 朝鮮總督府, 1918.

北朝鮮の古代国語研究と郷歌研究の関連性

－ 柳烈の『朝鮮語歴史1・2』と『郷歌研究』を中心に－

文玄洙*

本稿では北朝鮮の郷歌研究書である柳烈(2005)『郷歌研究』の学術的特徴について考察した。このために先ず郷歌を創作時期により三国時代・南北朝時代・高麗時代に分け、各時代を代表する郷歌として〈薯童謠〉、〈祭亡妹歌〉、〈礼敬諸佛歌〉を選定し、これに対する柳烈(2005)の解読を南北の代表的な郷歌研究書である梁柱東(1942)の『古歌研究』、洪起文(1956)の『郷歌解釈』、金完鎮(1980)の『郷歌解読法研究』と比較した。その結果、柳烈(2005)の『郷歌研究』は三国時代の郷歌、南北朝時代の郷歌、高麗時代の郷歌を解読するにあたり、これまで行われた北朝鮮の朝鮮語史に対する研究成果を反映し、各時期の音韻体系に徹底的に合わせて解読を進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ところが、このような解読は郷歌の表記そのものを帰納して行われたというよりは、既存の朝鮮語史に対する研究成果に基づいて演繹的に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の過程で利用した朝鮮語史に対する知識は、三国時代の固有名詞表記に対する博士学位論文である柳烈(1983)をはじめ、『朝鮮語歴史1・2』など北朝鮮の朝鮮語学界で独自の蓄積されてきた一連の学術的研究成果によ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柳烈(2005)の『郷歌研究』に対する学術的批判は、北朝鮮の朝鮮語学界で行われた中世以前の朝鮮語研究成果に対する学術的批判に基づいて行われ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 古代国語、柳烈、北朝鮮、朝鮮語学全書、朝鮮語歴史、郷歌研究

논문투고일: 2023년 4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3년 5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24일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